

생활게시판

• 동정 •

◇신경호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31일 오전 11시 자유회관 광장에서 열리는 자유수

호 희생자 합동위령제에 참석.

◇우원기춘천소방서장은



31일 오후2시 춘천 라데나콘도에서 '2012 긴급구조 종합훈련'

과 관련해 유관기관 사전회의를 개최.

• 토막소식 •

◇춘천소방서(서장:우원기)는 30일 춘천시 신복읍 물문4리에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만들기 위한 전기·가스 시설 안전점검과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점검을 실시.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관장:변영혜)은 30일 도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효자노인학교 수강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포천에서 가을나들이를 진행. [춘천]

# 약사천 물 공급 계획 놓고

## 수공 “물값 납부 연계해야” 시 “환경용수 대상 아니다” 연말 완공 앞두고 계약 난항

【춘천】춘천시의 역점사업인 약사천 복원사업이 막바지 공정에 이르고 있지만, 정작 소양강물을 끌어오는 계획이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자칫하면 생활용수처럼 무허가로 환경유지용수를 끌어다 쓰는 사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와 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한강홍수통제소에 약사천에 흘려 보낼 1일 3만8,000톤의 환경유지용수 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보완 지시가 내려졌다.

한강홍수통제소 측은 사용허가를 위해서는 ‘수자원공사와 맺은 용수 공급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11월이 되도록 시와 수자원공사는 용수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는 환경용수와 생활용수와의 연계를 주장하는 반면, 시는 하천유지용수와는 별개라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춘천 약사천 복원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형태가

이번 논쟁 과정에서 시의 소양취수장 시설도 미허가 시설물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1995년 첫 가동된 뒤 사용 연장을 받아왔지만, 물값 납부 문제와 결부돼 연장이 안 되는 바람에 현재는 미허가 시설이라는 것이다.

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미허가 시설물에서 하천유지용수를 취수하겠다는 것을 허락하는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며 “차제에 생활용수와 환경유지용수 모두

공급계약을 체결할 1995년 이후부터

역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이공지용수는 물값 대용수와 결부시키는데 없다”고 못 박았다. 는 물값을 안 내는 현행법률을 지키는 물값을 계상하는는 상황이 아니

# 기득수리물량 재조정도 사실상 불

【춘천】춘천시가 소양강댐 물값 해결의 한 방안으로 구상했던 기득수리물량의 재배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토해양부와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시는 한국농어촌공사 흥천춘천지사가 갖고 있던 1만058톤과 소

현재 시의 소양취수장을 통한 1일 취수량은 7만톤이며, 이 중 물값의 의무가 없는 예전부터 내려온 권리인 기득수리물량 2만톤을 인정받아 5만톤이 물값 대상이다.

하지만 이번에 3만톤의 기득수리

된다. 또 향후 물도 되는 용산취수 2만톤가량 늘린다. 이에 자유로워질 그러나 국토부 하지 않았지만

단 한쌍을 위한 특별한 선택~

## 산토리니 야외웨딩